

##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 입장문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결의한 내용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위원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위임된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임추위는 활동기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빠른 안정과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임원과 이사회 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화제의 중심이 될 박광수 신임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김영덕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을 발탁하여 새로운 활력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중요한 방향이었던 세대교체와 다양한 직군참여, 남녀성비 균형과 지역사회 참여폭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 공모와 관련해 영화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훌륭한 활동을 수행해 오신 많은 분들이 1차와 2차 공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과 방향성에 비춰 현 시점에서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임추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상의 제약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새롭게 임추위를 구성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래와 상황을 두루 고려해 집행위원장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추가 공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임원과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지 못 했지만, 지난해의 내홍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혁신위의 방향성과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새롭게 할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집행부의 역할도 막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8년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열정을 다해 온 영화제 관계자와 부산 시민들의 애정으로 이어온 짧지 않은 우리의 역사와 성과는 분명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끌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산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임추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영화인, 그리고 언론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힘찬 향해에 동참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